

12/18/16

설교 제목: 불쌍해 보이지만 결코 불쌍하지 않은 자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고린도전서 15:12-34

(고전 15:12)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전 15:13)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고전 15:14)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고전 15:15)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고전 15:16)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고전 15:17)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절관주** 요 8:21-24

(고전 15:18)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고전 15:19)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전 15: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절관주** 벰전 1:3

(고전 15:21)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고전 15: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Les Misérables)'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방대한 분량인 관계로 우리나라에서는 주인공인 '장발장' 이야기만 편집해 소개하면서 책 제목을 '장발장'라고 소개해 놓은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원 제목인 '레 미제라블'보다는 '장발장'으로 많이 알려진 작품입니다.

책 제목인 '레 미제라블(Les Misérables)'은 프랑스어인데 영어로는 'The Miserables' 우리 말로는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1832 년에 일어난 프랑스혁명 전후를 살아가는 프랑스 민중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으로 프랑스 민중들이 이토록 불쌍하고 비참하게 살아 갈 수 밖에 없는 사회의 부조리와 비합리성을 고발하는 동시에 인간의 죄와 구원에 대한 실천적인 해법을 담아 낸 소설입니다.

주요 인물로는 굶주리고 있는 어린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친 죄로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살아야만 했던 장발장, 전과자인 장발장에게 자신의 주교관에 머물도록 호의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은식기를 훔쳐 도망가 다시 감옥에 가야만 하는 처지가 된 장발장의 죄를 덮어 주고 은 촛대까지 줌으로써 장발장의 생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마리엘 주교, 정의를 추구한다고 생각하며 장발장을 추격하는데 평생을 바쳤으나 후에 장발장의 사랑과 자비 앞에 자신이 그동안 추구했던 정의가 가난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는 커녕 오히려 그들을 못살게 했고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책감을 느끼는 자베르 경감, 장발장의 공장에서 억울하게 쫓겨나 사회의 밑바닥까지 추락하였고 이 사실은 안 장발장이 도와주며 잠시나마 사랑했던 여인인 팡틴, 망가질 대로 망가져 병든 팡틴이 죽으면서 장발장에게 부탁한 팡틴의 딸이자 후에 장발장의 모든 것이 되었던 코제트, 장발장에게 처음으로 가족의 의미를 일깨워 준, 그리하여 장발장의 모든 것이 되었던 코제트와 사랑에 빠진 마리우스 풍메르시 등이 등장합니다.

이들 모두는 저마다 주어진 자기의 운명에 최선을 다해 살려고 발버둥쳐 보지만 고단하고 힘든 불행한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던 '레 미제라블(Les Misérables)'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소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일어나고 있고 일어 날 수 있는 일들을 다루기에 그것을 읽는 독자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참으로 많은 레 미제라블(Les Misérables),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지 않아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 환경이나 사회적인 여건으로 말미암아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등등.

요즈음 최순실 사태와 그것을 접하는 국민들의 분노의 반응이 단적으로 이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정의는 온데 간데 찾아 볼 수도 없고 비진리가 진리가 되어 판을 치며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그 세상을 온 몸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우리 모두는 '레 미제라블(Les Misérables)'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악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며 독야청청 살아가는 우리 진실한 크리스찬들은 더욱 더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 '레 미제라블(Les Misérables)'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언급되어진 세상에서 더욱 더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 '레 미제라블(Les Misérables)'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고난과 고통의 삶을 보겠습니다.

(히 11:35)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라는 말의 뜻은 엘리야 때에 사르밧 과부와 엘리사 때에 수벰 여인이 각각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하였던 것 등 세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믿음은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려 하지 않고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한 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좋은 부활이란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비교한 말로 내세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 11:36)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히 11:37)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히 11:38)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유다의 아사왕 때에 선견자 하나니(대하 16:7-10), 이스라엘의 왕 아합 때에 선지자 미가야(왕상 22:24-27), 선지자 예레미야(렘 37:16, 38:6), 스가랴(대하 24:21) 등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에서 조롱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선지자 이사야는 톱으로 켜져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히 11:39)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다는 증거 다시 말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들이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증거를 가진 자였지만 당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과 부활과 영생의 영광을 누리지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들을 진실로 '레 미제라블(Les Misérables)'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세상 삶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 핍박들을 기꺼이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도 부활을 믿고 세상의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이들은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전 15:19)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의 삶 너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어떤 고난이나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며 결코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하며 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일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 너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롬 8: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가슴 떨리는 고백입니다.

본문은 저희 믿는 자들이 불쌍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고전 15: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전 15:21)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고전 15: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자들의 부활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의 대표성을 언급하는데 이 말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죽어야 했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눈, 소망의 눈을 열어 주었습니다.

1.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삼 년 동안 자신들의 생업, 가족 등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주님을 따라 다녔던 열두 제자들은 자신들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철썩같이 믿었던 예수님께서 힘도 한 번 써 보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어이없이 죽으시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도 유대인들에게 분잡혀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움에 떨었으며 앞으로 살아갈 길도 막막해 절망에 사로 잡혔습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삼일만에 부활하셔서 저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전에 예수님이 당신이 삼 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님께서 살아 생전 말씀하셨던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눅 22 장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 엠마오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들에게 너무 큰 실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 오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가 주님이신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식사하시는 도중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자 자기들과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자 저들은 곧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며 살다보면 믿음의 눈이 닫혀버립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 달라집니다.

이 시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눈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이 세상의 삶 너머 저 천국의 삶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2.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자신들도 주를 위해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초대교회 자료를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 사도 요한을 제외한 열 한 제자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둥에 매달린 채 몸이 찢겨져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매는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군인들에 의해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또 다른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끌려가 밀어 떨어뜨려져 순교했습니다.

시몬은 이집트에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야곱의 동생 유다는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활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 대신 선출된 맛디아는 이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우리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던 저들이 어떻게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순교함으로써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는, 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는 차원이 다른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 땅에서 죽어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이제 천국의 소망을 둔 저들은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서 거기서 세상에서 행한 행위대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은 확실하지도 않는 내세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확실한 현세의 이 세상을 포기하는 우리들을  
가르켜 불쌍한 자들이라고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는 결코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양 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진정  
불쌍한 사람들 '레 미제라블(Le Misérables)' 입니다.

진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사시기 바랍니다.